

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

지구과학I 짹기 노트

못 푼 문제를, 그냥 짹지 않고 마킹하는 법

읽기 전에

구매하시기 전에, 그리고 읽으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

1.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1~2027학년도 6월9월 모의평가와 수능 정답표 및 문제지(20회, 400문항)를 판매자가 직접 집계해서 만들었습니다. 평가원, EBS, 교육부와는 관련이 없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.
2. 여기 적힌 숫자는 "지난 시험에서 실제로 이랬다"는 기록입니다. 평가원이 앞으로도 이렇게 내겠다고 한 규칙이 아니므로,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자료를 쓴다고 해서 정답을 맞히거나 점수, 등급이 오른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. 어떤 번호에 마킹할지는 시험 당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, 그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.
4. 풀 수 있는 문제는 푸는 게 먼저입니다. 이 노트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끝까지 풀지 못한 문항에서 마킹의 기준을 잡는 보조 자료이고, 공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5. 일부 항목은 표본이 8~20문항 안팎으로 작습니다. 표에 "100%"나 "0회"라고 적혀 있어도 "그 표본 안에서는 예외가 없었다"는 뜻입니다.
6. 6장의 오른쪽 칸과 7장은 과거 패턴에서 뽑은 예측입니다. 1~5장의 기록과 구분해서 따로 표시했고,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.
7. 문항 원문이나 해설은 실지 않았습니다. 이 파일은 구매하신 분 본인만 쓸 수 있고 복제·공유·재배포·재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,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8. 내려받는 파일이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환불 기준은 판매 페이지의 안내를 따릅니다.

파일을 구매해 내려받고 읽기 시작하셨다면, 위 내용을 확인하신 것으로 봅니다.

머리말

4페이지에 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. 어차피 못 푸는 문제가 한두 개는 남는데, 그때 아무 번호나 찍으면 맞을 확률은 5분의 1입니다.

그런데 평가원 정답표는 생각보다 규칙적입니다. 번호가 어떻게 배분되는지, 앞뒤 문제에서 같은 번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, 합답형 선지가 어떤 모양일 때 정답이 어느 번호에 몰리는지가 20회분 정답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 노트는 그걸 시험장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.

분량은 일부러 줄였습니다. 시험 중에 읽을 수 있는 건 표 몇 개뿐이니깐요.

먼저 직접 확인해 보세요

무작정 믿고 시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.

기출만 있으면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네 가지를 먼저 적습니다.

1. ①~⑤가 정확히 4개씩 나온 시험 — **20회 중 0회**
2. 어떤 번호든 20문항 중 2개 이하로 나온 시험 — **20회 중 0회**
3. 같은 번호가 세 문제 연속으로 나온 경우 — **400문항 중 0회**
4. 13번과 14번, 15번과 16번이 같은 번호인 경우 — **각각 20회 중 0회**

이 네 가지가 맞다면, 뒤의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정답표를 집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

시험장에서는 이 순서로

1. 1~15번을 풀고 16번에 들어가기 전에, 내 OMR의 ①~⑤가 몇 개씩인지 센다. **(1장)**
2. 2점 문항 10개를 푼 뒤 번호별 개수를 센다. 못 푼 3점 문항의 번호가 여기서 정해진다. **(2장)**
3. 못 푼 문제는 선지 모양부터 본다. 지울 번호를 지우고, 보기 하나만 확인한다. **(3장)**
4. ㄱ·ㄴ은 풀었는데 ㄷ이 막히면, ㄷ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본다. **(4장)**
5. 마킹하기 전에 앞뒤 문제의 번호를 확인한다. **(5장)**
6. 고난도 유형은 단원 표를 본다. **(6장)**